폭염 점입가경, 군민이 위험하다

임실, 살수차·취약계층 관리·무더위쉼터 운영 등 안전대책 시스템 가동

임실군이 폭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 안전대책 시스템을 서둘러 가동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 20일 박진두 부군수 주재로 농업정책과와 축산산림과, 안전관리과, 주민복지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건설과 등 7개 관련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폭염에 대비한 긴급 합동대책회의를 가졌다.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도내에서만도 온열질환자가 총 30명이 발생한 가운데 임실군에서는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축산피해는 총 1만9,060두·수(돼지 60, 닭 1만9,000)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합동대책회의에서는 한동안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살수차 운영과 폭염대책 홍보,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여름철 물놀이 및 다슬기 체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군은 살수차량 3대를 이용해 도로의 열기를 식히고 있다.

구간은 거주인구가 많고 도로포장율이 높은 임실읍, 오수면, 관촌면 3개 읍·면의 16개 노선 주요간선 도로다.

또한 폭염에 가장 취약한 대상인 노인과 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에 나서고 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읍면사무소 등 관내 332개소에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에어컨 가스주입, 간판 부착 등 사전점검을 완료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도 했다.

군민 홍보를 위해 폭염 대비 부채와 포스터, 리플렛도 제작하여 무더위 쉼터에 배부할 예정이다.

폭염으로 가축 및 농작물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도 독려해 나가고 있다.

폭염환자의 안전진료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집중적인 예방수칙 홍보 및 주민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박진두 부군수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폭염대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다양한 피해 예방법을 강구하고 발굴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폭염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외에서 일할 경우 탈수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원한 물을 휴대하면서 수시로 마시고, 뜨겁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은 멀리하며,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과일이나 우유 등을 섭취해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읍 일품공원의 야외 바닥분수.

일품공원, 더위 탈출구 역할 톡톡

순창군, 바닥분수 운영 등 군민쉼터 제공 최선

순창읍 일품공원이 문화가 있는 군민 쉼터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군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군은 7월부터 매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저녁 6~7시에 일품공원 소공연장에서 생활문화예술동호인들의 공연이 정기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21일에는 엘리트스포츠, 순창 여성합창단, 두드리고 난타, 우쿨렐레, 플룻 앙상블 동호회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공유해 지역문화 수준이 한껏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은 10월까지 이어진다.

특히 지난해 완공된 소공연장은 공연팀과 주민이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시설로 일품공원 문화공연 인기에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소공연장은 64㎡ 규모로 20여명 정도가 공연할 수 있으며 관객과 공연팀의 거리가 가깝게 만들어 졌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일품공원이 더위 탈출구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일품공원의 야외 바닥분수가 내뿜는 시원한 물줄기로 더위를 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닥 분수는 오전 10시에서 저녁 9시까지 운영된다. 군은 기존 지하수를 사용하던 방식에서 상수도로 교체하고 15일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로 분수를 가동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메아리

남원 "인삼 경작 관리 철저하게"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장마기와 고온으로 인한 인삼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방제 및 침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인삼은 호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습해, 도복, 토사매몰, 유실 등을 유발하여 장기간 침수 시 배수불량답 및 해가림 시설 불량 포장에서는 수량이 감소된다.

또한 줄기가 신장이 억제되고, 잎과 엽병의 적변삼 등 생리장해 발생으로 조기낙엽이 이루어지고 탄저병, 점무늬병 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며, 장마기 이후 시작될 고온에서는 잎가장자리가 회갈색으로 타들어 가면서 식물체 전체가 고사되는 증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호우 및 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두둑을 높게 유지하며, 해가림 시설의 늘어진 피복물을 팽팽하게 유지하여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하고, 고온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가림 시설 방향을 동북향으로 두고 120도로 각도주어야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인삼 병해충 및 고온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농가소득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상재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치즈축제 홍보전 총력

임실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18 임실N치즈축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2018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전라도 방문의 해를 십분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다양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군은 지난 20일과 21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광장에서 열린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호남여행 체험전'에 참가하여 임실N치즈축제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 홍보에 비지땀을 흘렸다.

이날 군은 홍보부스를 운영, 체험전 방문객을 대상으로 임실N치즈축제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임실치즈테마파크 치즈 만들기 체험행사는 5회에 걸쳐 진행했다.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진행된 호남여행 체험전은 전라권의 주요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수도권 거주 및 내국인의 지방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전북과 광주, 전남 3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국내여행상품 취급 여행사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행사다.

/임실=진홍영 기자

야생진드기 사망자 잇따라…

임실, 감염병 예방 각별 관리

최근 도내에서 야생진드기(SFT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임실군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적극 나섰다.

군은 이달 한 달동안 주요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사선대 등을 중심으로 야생진드기 채집조사에 나섰다.

이번 야생진드기 채집 조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을 대비, 진드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군은 관내에서도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채집된 진드기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진드기 매개 질환 예방수칙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마을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고 있으며, 진드기 기피제를 배부하여 예방지원에 나서고 있다.

예방수칙 홍보 및 주민교육으로 관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예산 5000억 시대 열릴까

군, 민선 7기 업무성과 창출 강력 드라이브 시동

황숙주 순창군수가 국가예산 5,000억 시대를 열기 위한 업무성과 창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군은 지난 20일 황 군수 주재로 부서별 국가예산확보 및 현안업무 추진상황보고회를 영상회의실에서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민선 7기 '국가예산 5000억 시대', 관광객 500만 유치, 인구 4만 회복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안사업 추진상황과 국가예산 확보 및 공약사업 추진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황군수는 "민선 7기 3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논의하는 국가예산확보 사업들과 현안업무, 공약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군민 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가예산 확보는 해당부처와 기재부 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중요한 만큼 사업 시작단계부터 사업추진의 당위성 설득에 노력해 줄 것과, 같은 것을 보더라도 느끼는게 다르다며 새로운 시각에서 사업을 보는 관점을 길러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 실과장이 참여했으며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국도 21호선 밤재터널 개량사업,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유치,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발효식초육성사업, 월드푸드사이언스관 구축, 유기농집단재배단지 조성,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순창읍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 등 79개 4500억원 규모의 신규 국가예산확보사업이 중점 논의됐다.

6개분야 45개 공약사업,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문제점 등에 대한 열띤 보고와 질의 답변 등이 오갔다. 이번 보고회는 향후 민선 7기 성과창출에 본격적 시동을 거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남원예산동아리, 퇴직자 · 시민전문가와 토론회 개최

남원시 예산동아리 온새미로는 지난 19일 전직 공무원 및 시민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규상 전 남원시 총무국장, 박상선 전 안전경제건설국장을 비롯해 김진석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 이규용 지역공동체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을 통해 그동안 남원시 발전을 위해 기울였던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 향기원 조성, 국립 민속국악원 유치, 노인 및 청소년 정책 등에 대한 추진과정과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 등에 대한 노하우를 청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의했다.

또한 예산동아리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가칭 '남원 살림살이 23년'은 1995년 민선자치 출범이후 지난 23년간 남원시 재정운영상황을 돌아보고, 그동안의 주요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원시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책자 발간을 준비중이다.

지난 12월 퇴임한 양규상 전 총무국장은 "지방자치 23년을 맞아 그 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준 온새미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의 노력과 열정을 격려했다.

예산동아리 회원들은 "현재 준비중인 가칭 남원 살림살이 23년 책자 발간시 선배 공무원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책자 발간 이후의 시의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